

## 기대에 못 미친 상반기 인도경제 성장률

작성자: 이순철

□ 인도재무부는 2011/12년 경제성과 상반기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, 8%대의 성장을 기대했던 2011/12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7.3%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.

- 인도경제는 2010/11년 GDP성장률이 8.5%를 기록하면서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장을 보여 세계의 주목을 받았음.
- 그러나 1분기 7.7% 성장에 이어 2분기(7-9월)의 성장은 6.9%를 성장하여, 지난 같은 회기 8.4%의 성장에 비해 상당히 낮은 성장률을 기록함.
- 이에 인도정부는 2011/12년 경제성장률을 8%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7%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전망을 낮춤.

표 1 인도의 분기별 성장률 현황

(단위: %)

부문	2010/11				2011/12	
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1분기	2분기
농수산업	2.4	5.4	9.9	7.5	3.9	3.2
공업	<b>9.1</b>	<b>7.1</b>	<b>7.1</b>	<b>6.1</b>	<b>5.1</b>	<b>3.2</b>
광업	7.4	8.0	6.9	1.7	1.8	-2.9
제조업	10.6	7.8	6.0	5.5	7.2	2.7
전기/가스/용수공급	5.5	2.8	6.4	7.8	7.9	9.8
건설	7.7	6.7	9.7	8.2	1.2	4.3
서비스업	<b>10.4</b>	<b>9.6</b>	<b>8.4</b>	<b>8.7</b>	<b>10.0</b>	<b>9.3</b>
무역/호텔/수송 및 통신	12.1	10.2	8.6	9.3	12.8	9.9
금융/보험/부동산/비즈니스	9.8	10.0	10.8	9.0	9.1	10.5
사회 및 공공서비스	8.2	7.9	5.1	7.0	5.6	6.6
총 GDP	<b>8.8</b>	<b>8.4</b>	<b>8.3</b>	<b>7.8</b>	<b>7.7</b>	<b>6.9</b>

자료: Central Statistics Office (CSO)

□ 경제성장률을 가장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공업부문과 농업 부문의 성장세의 둔화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.

- 공업 부문이 상반기에 4.2% 성장하여 지난 상반기기 8.1%에 비해 아주 낮은 성적으로 기록하였음
- 농업 부문도 상반기 3.6%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지난해 상반기와 유사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.
- 다만 서비스업 성장이 현재 인도경제성장을 지속시키고 있음.
  - 서비스업은 지난 1분기 10% 성장에 이어 2분기에는 9.3%를 기록하면서 인도경제성장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고 있음.
  - 서비스 부문에서는 무역관련 부분의 성장이 지난 분기 12.8%에 비해 약간 낮지만 2분기에 9.9%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으며, 금융부문이 지난 분기 9.1%에 비해 2분기에 10.5%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.

□ 인도경제 성장 둔화는 다분히 국제적 요인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며 인도의 무역 등의 대외부문의 강한 성장세가 그나마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.

- 이렇게 인도경제의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원인으로는 유럽지역의 경제위기, 국제 원유가격 상승 등의 글로벌 요인과 세계경제의 침체와 급속한 인플레이션과 긴축적 금융 및 재정정책 등과 같은 국내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.
  - 최근 유럽경제의 붕괴는 외국인 금융투자 하락 및 화폐의 평가절하 등을 통하여 인도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제원유가격 상승으로 국내 유가의 동반 상승으로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.
  - 물가는 지난 6개월 동안 9% 이상 높은 상승을 지속하면서 금리를 지난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3번이나 상승시키면서, 인도경제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예견될 정도임.
  - 그러나 지난 분기 수출 52% 성장과 수출 32% 성장 등 급속한 무역부문의 성장이 그나마 인도 경제성장추세를 유지하고 있음.
  - 또한 밝지 않은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가하는 외국인직접투자도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음. 4-9월까지 191억 달러의 FDI가 유입되었는데, 이는 지난 같은 기간 동안 110억 달러에 비해 거의 73%나 증가함.

□ 인도경제 성장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7%에도 못 미치는 6%의 성장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.

- 국제원유가격과 국내 식품가격은 여전히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하기가 쉽지

않음.

- 재정수지가 조세수입의 감소와 지출증가로 여전히 적자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.
- 오히려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긴축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

□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인도경제는 7%대의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됨.

- 인도 루피의 평가절하는 국제무역에서 인도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개선시켜 인도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로 연결되어 무역수지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평가됨.
- 급속히 증가하는 물가도 식품가격의 안정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음. 이에 따라 금리도 하락하여 기업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- 또한 금융투자부문이 아닌 외국인 직접투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입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인도경제는 7% 중반이하의 경제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평가됨.